

“강정호, PIT 타선에 파워 더해줄 것”

강정호(31,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내년 시즌 피츠버그 타선에 파워를 더해줄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엠펙뉴스’에 따르면 피츠버그 전문 매체 ‘엠펙 버터’ 마티 리프는 지난 23일 내년 시즌에 재기해야 할 선수 중 한 명으로 강정호를 꼽았다.

리프는 “2018시즌 내셔널리그에서 장타 생산력이 가장 낮은 팀 중 하나였다.”며 장타력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선수로 강정호가 언급됐다. 리프는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며 “강정호가 내년 시즌 타선에 파워를 더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피츠버그 20홈런 이상 기록한 타자는 그레고리 폴랑코(23홈런), 스타링 마르테(20홈런) 두 명이 전부였다. 강정호는 빅리그 통산 성적은 232경기 타율 .274 36홈런 OPS .837을 기록한 타자. 리프는 “강정호가 2015, 2016년의 활약을 재현한다면, 팀 성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매체는 “공격력에서 일관성을 갖춘다면 피츠버그는 2019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가성비 최고!’ 레이커스 센터 3인방

LA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가 빠지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으며 크리스마스 대첩을 만들어냈다.

지난 26일 ‘스포츠아시아’에 따르면 LA 레이커스는 전날 오클랜드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2018~2019 NBA 정규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원정경기에서 3쿼터 중반 르브론 제임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를 맞았음에도 라존 론도 등 다른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골든스테이트를 127대101로 대파했다.

이로써 LA 레이커스는 코비 브라이언트 시절인 2012년 12월 22일 이후 11경기만에 오라클 아레나에서 승리를 거두며 지긋지긋한 원정 11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라존 론도(사진)였다. 론도는 23분간 뛰며 15득점 5리바운드 10어시스트 상대의 코트를 휘저으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하지만, 론도의 뒤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3년차 센터가 있었다. 바로



이비차 주바치였다. 주바치는 캔들러와 맥기가 출전이 어려워지자 선발로 출전해 31분동안 활약하며 18득점 11리바운드 2어시스트 2블락을 올리며 골든스테이트를 골밑에서 완전히 압도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올 시즌 LA 레이커스가 암흑기를 딛고 선두다툼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연 르브론 제임스 효과다. 하지만, 르브론 뒤에 받쳐주는 센터진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승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LA 레이커스는 기존 주바치와 저베일 맥기에 피닉스 선즈에서 풀린 베테랑 타이슨 캔들러까지 영입하면서 센터라인을 구축했다. 세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에 기여를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주바치, 캔들러, 맥기의 연봉 총합은 519만 4,468 달러. 저비용 고효율로 레이커스를 이끌고 있는 센터 3인방은 올 시즌 최고의 가성비 선수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시안컵 우승팀에 500만 달러 상금 사상 최초

아시안컵이 달라졌다. 2019년 UAE 아시안컵부터 참가팀들에 높은 동기부여가 될 상금이 처음으로 생겼다. 또 참가팀 수도 24팀으로 늘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도 아시안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우승과 더불어 차기 2023년 아시안컵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9년 UAE 아시안컵 우승팀엔 상금으로 500만 달러가 지급된다. 500만 달러는 대한축구협회의 2019년 예산 중 각급 대표팀 운영비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준우승팀에는 300만 달러, 공동 3위에는 100만 달러씩이 주어진다. 또 참가하는 24팀에 20만 달러씩 준비금 조로 돌아간다.

아시안컵에 이렇게 큰 상금이 걸린 건 이번이 처

음이다. 2015년 호주 대회까지는 상금이 전혀 없었다. 예전엔 항공비와 숙박 비용만 부담해주는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 참가팀 수가 24팀으로 늘었다. 4팀씩 총 6개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16강팀을 추린다. 조별리그 상위 1~2위팀과 성적 상위 3위 4팀이 16강에 진출한다. 직전 대회까지는 16팀이 참가해 조별리그 후 8강전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렸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서 두 번(1956년, 1960년) 우승했다. 한국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네 번(1992년, 2000년, 2004년, 2011년) 정상에 올랐다. 한국, 일본과 함께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호주는 한 번(2015년), 이란은 세 번(1968년, 1972년, 1976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